

운악산 바람이 전해오는 함허 스님의 호불정신

〈護佛〉



45 호불(護佛)의 기운 어린 현등사

경기도에서 산세가 크고 경치가 빼어난 산 5개를 경기오악(京畿五嶽)이라 합니다. 신라 때부터 그렇게 불리는 5개의 산은 개성의 송악산(489m)과 화악산(1468m) 운악산(945m) 관악산(630m) 감악산(675m)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운악산의 정상은 기암괴석과 탁 트인 시야가 일품이라 늘 산꾼들이 북적거립니다.

어느새 겨울잠에 빠진 운악산 계곡, 나뭇잎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물소리보다 크게 들립니다. 초겨울의 산바람은 분주한 일상을 감싸 안고 살아 온 날들을 반추하게 합니다. 운악산 중턱의 현등사(顯燈寺)까지는 자동차가 오르기에 편한 길이지만 걷기로 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무상(無常)한 만물의 실체를 느껴보려 했는데 막상 걷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망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제법 경사진 오르막길을 천천히 걷다가 숨이 찰만한 곳에서 절을 만납니다. 새로 조성한 108계단을 올라가 지진탑과 3층 석탑에 배례하고 극락전 아미타부처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절 마당에 있는 석조에서는 맑은 물이 찰찰 넘칩니다. 한 모금 마시고 등산로에 접어들면 곧바로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 스님의 부도를 만납니다. 팔각의 화장암 3개를 포개어 쌓고 그 위에 둥근 몸돌을 얹었습니다. 옥개석은 매우 경사가 가파르고 상륜부는 간소합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획득하였으나 화려하거나 웅장한 맛은 없는 부도입니다. 팔각원당형을 근간으로 했지만 상당히 간결해진 양식입니다.



운악산 현등사의 함허 스님 부도

니다. 황해도 평산의 자모산 연봉사와 문경 봉암사, 강화 정수사와 운악산 현등사입니다. 연봉사는 이름만 남았을 가능성이 크고 봉암사에는 부도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등사와 정수사 두 곳에서 함허 스님의 부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은 함허 스님이 만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강화 정수사 능선에 서 있는 함허 스님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의 전통을 따랐고 장엄한 맛도 훨씬 더 풍깁니다.

있을 다 떨어 버리고 맨 몸으로서 서 있는 나무들처럼 간결한 몸매를 드러내고 있는 함허 스님의 부도 앞에서 그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고려 말(우왕 2년)에 태어나 조선의 하늘아래 살다 임적(세종 2년)한 함허 스님의 시대, 불교에서 유교로 사상적 기반이 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려말이나 권력집단이 불교를 받들어 온갖 추악한 욕망 채우기에 급급했고 결국 왕조를 폐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함없이 빛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심에 먹구름이 끼어 혼탁한 세상을 밝힐 등불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속의 학문에 열정을 쏟았던 청년 시절, 그는 천재적 기질을 발휘해 유학의 경서들을 섭렵합니다. 그러나 21세 되던 해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무상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고 '인(仁)'을 가르치는 유가에서 살생을 금지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가사에서 만난 노스님에게 "불교에서는 '불살생계'를 가장 처음으로 꼽는다"는 말을 듣고 출가하게 됩니다. 태조 4년(1396) 관악산 의상암에서 머리를 깎고 다음 해 봄에 회암사에서 무학대사에게 가르침을 받아 지공-나옹-무학으로 이어져 오는 조계의 선맥을 잇게 됩니다.

이름 〈조선불교통사〉(이능화 편)에서는 '함허정허부종수교(涵虛淸虛扶宗樹教)'라는 제목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고려 말에 해동의 불멸에는 두 갈래로 있었으니, 태고국사와 나옹왕사이다"라고 시작하는 이 기사는 "나옹이 무학을 얻고 무학이 함허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함허 스님은 선종의 정맥을 이었지만 교학에 두루 밝아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설의〉(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설의) 〈선종영가집과주설의〉(현정론(顯正論) 등 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현정론〉은 역불승유의 사상이 자리를 다져가는 시기에 불교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려는 스님의 정성이 세세밀밀하게 담겨 있는 글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정도전은 건국 초기의 조선을 유학의 이념으로 무장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불서잡변〉 등의 저술을 통해 불교를 지탄의 대상으로 몰고 갔는데 그에 대한 반박문이 바로 〈현정론〉입니다. 유가에서 불교를 향해 문제 삼은 사항들에 대해 불교적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 〈현정론〉의 내용은 6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선초기의 역불은 자연스런 사상의 변화가 아니



강화 정수사의 함허 스님 부도

라 지배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려의 불교가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권력화 된 점들은 반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유생들이 전개하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공격은 반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심찮게 종교편향 사례가 터져 나오는 단계를 지나 조직적인 훼손과 왜곡이 자행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개신교 계통의 일부 청년들은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경내에

-지금 불제자는 부모께 아뢰지도 않고 마음대로 집을 나가며, 한 번 나간 뒤로 종신토록 돌아오지 않는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맛있는 음식을 드리지도 않고 돌아가신 뒤에는 정성껏 장례를 모시지도 않는데 어찌 불효가 아닌가?

"충성과 효도를 다해 그 직책을 조심스럽게 지키며 바른 도를 지키고 재계를 극진히 하는 것을 종신토록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서는 종

제후를 섬기지도 않는다. 고상하게 깃들고 멀리 떠나 일의 성패를 앉아서 바라보지만 한다. 어찌 충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

"출가한 이들이 모두 야심에는 항을 사르고 저녁에는 등불을 켜 임금과 나라를 위해 축원한다. 어찌 충성이라 말하지 않겠는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권세와 형벌의 위엄을 빌리지 않고도 사람들을 모두 교화로 나아가게 한다. 어찌 임금과 나라에 도움이 없다 하겠는가?"(후략)

〈〈현정론 간행서교소〉 김기영 역주 한국불교연구원〉

선종·교종 통달하며 조선초기 역불 주장에 반박 훼손 심한 오늘날 불교 이해시킬 '현정론' 필요

서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위 '땅 밟기'를 하는 그들에게는 종교의 사회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종교만이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척결의 대상일 것입니다.

함허 스님이 〈현정론〉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절처럼 오늘날 불자들이 불교의 바른 지침을 분명하게 알고 참다운 불자의 삶을 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람결이 차가운 운악산 계곡, 함허 스님의 부도 옆에 앉아 〈현정론〉의 내용을 더듬어 봅니다.

은 이름을 잃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는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서 좋은 이름을 얻었을 뿐, 애욕을 끊은 사람은 거의 드물며, 죽었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날 뿐 윤회를 면하기는 어렵다. 애(愛)는 윤회의 근본이 되고 욕망은 생명을 받는 인연이 된다. 보통 사람들은 처자(妻子)의 번뇌도 면하지 못하는데 어찌 애욕을 끊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애욕을 끊지 못하는데 어찌 윤회를 면할 수 있겠는가?"

-지금 불제자는 천자에게 조회 하지도 않고 왕과

모두 13항목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현정론〉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시주의 근본적 의미, 영혼불멸설에 대한 입장과 화장풍습의 의미, 삼세인과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불교의 입장만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관점과 현실적인 인식의 입장 등을 두루 살피면서 불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있어 함허 스님의 도량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합니다.

유생들이 불교를 오랑캐의 것이라 폄박하고 불자들이 제앙을 조래하는 무리이고 무위도식하는 집단이라고 매도했듯이 오늘날에도 불교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폄박하여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허 스님의 〈현정론〉이 다시 출현해야 할 때입니다.

글 사진=임연태 (시인, 본지논설위원)

관음태교원 개원 기념 무료 태교강의

동서양의 의학 전문가들과 불교 대 수행자가 관음태교를 통해 만났다
대수행자와 동서양의 의학박사들이 현장강의를 통해 증명하는 과학적 태교법

누구든지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태교

태교는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구입한 수많은 태교 서적들과 음반들이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금도 방한 구석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고 재밌는 현장강의를 통해 습득된 관음태교는 여러분을 10개월간의 자연스러운 태교로 이끌 것입니다.

24시간 어디에서도 가능한 돈 안드는 태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태교 오직 정성스런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관음태교를 통해 성장한 아이는 건강하고 성품이 바르며 총명하여 사교육비 부담과 성장기 자녀와의 다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태교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극대의 효과를 지닌 태교

법화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태교법이며 삼매 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까지 하신 희유한 타력 태교로 세상 그 어떤 태교도 관음태교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일요일 3시간의 강의만으로 아이의 운명과 한 가정의 미래가 바뀝니다.

단 한 시간의 강의만이라도 듣고 평가해보십시오.

현지사 관음태교원에서 정말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아이의 평생을 위해 단지 일요일 3시간씩만 투자하십시오.

1. 모집인원 : 00명
2. 수강자격 : 관음태교를 배우고 싶은 모든 남녀(특히 미혼·기혼의 젊은 여성 및 신혼부부)
3. 교육시간 : 일요일 3시간 강의 (2010년 12월 5일 ~ 2011년 1월 9일)
4.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내 영산불교대학(2층)
5. 강의 주제 및 강사 :

- ◆ 관세음보살 보문품 공부 및 관음태교 실습 (관음태교법 교재 제공)
-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윤운수 (의학박사)
- ◆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김병기 (부산 동의대학교 생물학과교수)
- ◆ 한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원종식 (대구 도솔천한의원 원장)
- ◆ 산모건강체조 - 이영미 (창원병원 재활치료 팀장)
- ◆ 신불교 사상 (관세음보살님의 실존하심과 위대성) - 일도스님 (영산불교대학 교학처장)
- ◆ 관음태교 이론 (불교학과 태교과학의 조화) - 혜운법사 (영산불교대학 교수, 관음태교 저자)
- ◆ 관음태교사례 (관음태교로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의 체험담)
- ◆ 덕산스님 특강 (영산불교대학 학장, 전직 외교관,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으로부터 MBE훈장 받음)

문의 : 현지사 대전분원 ☎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부설 관음태교원

